지역 전문건설업체 실적 증가, 이익은 감소

기업 채산성 되레 악화… 수익성 떨어져 도산업체 속출

광주전남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공사실적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가 내놓은 '2012년도 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 공사 실적'에 따르면 도내 2899개 업체 가운데 2595개 업체가 신고한 기성총액(매출액)은 전년보다 3.6%(1132억원) 증가한 3조2247억원에 달해 전국 전문건설업체 기성 증가율(-2.6%)보다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실적 증가에도 원·하도급 수주별 분포를 보면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원도급공사의 비중이 전체 기성액 대비 23.5%인 7584억에 불과했으며 전년에 비해서도 1.3% 감소해 기업 채산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광주시회의 전체 실적 신고를 마친 818개 업체의 시공 실적도 총액 1조312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7%(462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공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5억 원 미만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전문건설업 경영의 손익분기점(공사실적 10억 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전체의 62%인 515개 업체에 달했고, 현상유지 또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수는 전체의 38%에 그쳤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품셈 하향 조정, 실적공사비 적용확대에 따른 설계 가격의 부적정, 발주처 및 원도급사의 설계가격 삭감 관행 등에 따라 적정공사비가 보장이 안 된 현실 속에서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생존에 유리하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이상현 회장은 "그동안 전문건설업계의 기술개발을 통한 자구노력에도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정부의 지나친 예산절감을 위한 표준 품셈의 하락,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하도급 강요 등으로 공사 수익성이 떨어져 도산위기에 직면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호남최대 호텔급 장례식장 28일 오픈

'스카이 장례식장' 수완동에

호텔급 시설을 갖춘 '스카이장례식장'이 28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문을 연다.

㈜스카이장례식장(대표 박화자·고정주)은 총 3만여㎡의 부지와 연건평 6000㎡(1815평) 규모의 호남지역 최대시설을 갖췄다.

최신식 시설의 특대형 VIP룸(826㎡·250평) 2실과 특실(760㎡·230평) 2실, 대형(413㎡·125평) 2실, 중·소형(297㎡·198㎡, 90평·60평) 3실 등 9실의 크고 작은 접객실과 안치실 1실, 영결식장 1실(60석)을 제공한다. 또 정확한 입관시간을 준수하고 상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2실의 입관실을 광주 최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문상객들을 위해 2000㎡의 공원쉼터를 조성하고, 커피 전문점과 자동차 1000여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도 갖추고 있다. 편안한 분위기의 분향실과 접객실은 물론 유가족을 위한 최고급 상주방과 샤워실, 식당, 편의점 등 호텔 수준의 부대시설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음식류와 장의용품, 상복, 영정장식, 영정사진, 장의차, 제물류 등을 엄선해 가격 정찰제로 판매, 대여하며 전문 장례지도사 4명 등 임직원 17명이 24시간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 대표는 "유족과 조문객을 가족처럼 대하고 고인의 넋을 가장 편안히 모시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062-951-1004).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엔화대출, 원화로 바꾸면 우대

광주은행, 연말까지 시행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엔화대출을 한 중소기업이 원화대출로 바꾸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엔화대출 원화 대환 우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엔화대출 원화대환 우대서비스'는 엔화대출 보유 기업의 환율변동 위험 해소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원화로 대환을 신청하면 환율을 최고 70%까지 우대해 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한다.

또 대환하는 원화대출에 대해 최고 1.5% 범위 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 이정학 부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환율변동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절세미인 세무세미나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이근 부행장보)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절세(節稅)미인 세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세제개편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바탕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전략 등의 내용을 소개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대출가구 60% "원리금 상환 어려움"

주택마련·생활자금·전월세보증금 용도 순

금융기관에서 작년에 돈을 빌린 가구가 전년보다 늘어나 전체 가구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부채 가구의 60%가량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가조사)' 결과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57.1%다.

전년 54.0%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2월 전국 2119개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출용도는 거주주택마련이 34.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생활자금 25.4%, 전월세보증금 12.6%, 사업자금 12.2% 등이었다.

주택 관련 대출이 절반에 가까운 46.9%다. 지난해 은행에 신규대출 또는 만기연장대출을 신청한 가구는 전체의 30.0%였다. 이 가운데 23.0%는 대출신청액 일부만 받았고, 2.4%는 아예 받지 못했다. 은행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지 못한 이유로는 '낮은 소득수준'이 35.7%, 담보부족(33.7%), 신용상태(17.3%) 등 순으로 많이 꼽혔다.

은행 대출이 모자라는 가구 가운데 45.4%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25.5%는 지인 등에게서 부족자금을 융통했다.

한은 관계자는 과다부채가구가 줄어든 데 대해 "그동안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금리가 내려서 이자부담이 감소했으며, 일부 거치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부채 가구의 18.0%는 작년에 원리금을 제때에 갚지 못한 전력이 있었다. 4회 이상 연체 가구도 4.7%나 됐다. 58.9%는 작년에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62.3%는 원리금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답해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신협 광주·전남본부 작년 당기순이익 188억

오늘 사업평가·사업설명회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해 자산과 예금 등의 증가로 18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6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2012년 사업평가 및 2013년 사업설명회'를 열고 내실 경영을 다짐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시상과 올해 사업 설명과 목표달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는 장태종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91개 신협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 170여명이 참석한다.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5일 내놓은 지난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이 6조 2729억원으로 전년대비 1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은 3조 8862억원으로 전년대비 5.26%, 예금은 5조 6735억원으로 전년보다 14.24% 각각 늘었다. 그 결과 188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올 주요 목표로는 연체금 362억원 감소, 요구불예금 429억원 증대, 출자금 295억원 증대, 대출금 1302억원 증대 등으로 설정했다.

진승현 본부장은 "회원 신협들의 노력 덕분에 작년 한 해에도 광주·전남 신협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며 "올해 목표를 달성하고 91개 모든 조합이 안정적인 경영을 펼치도록 지역본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사업평가 결과 경영대상에 광주시 중흥동에 본점을 둔 중흥신협이 수상하게 됐다. 경영최우수상은 광주어룡신협 등 3곳, 경영우수상은 광주문화신협 등 6곳, 경영장려상은 두암신협 등 12곳이 각각 수상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 2009.52 (-9.37)	▼ 527.27 (-1.09)	▼ 2.68% (-0.01)	▲ 1,086.30원 (+1.60)

중진공, FTA피해기업 지원

융자 275억·컨설팅 4억 규모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5일 지식경제부의 2013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에 따라 융자 275억 원, 컨설팅 4억 원 규모로 FTA피해기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FTA확대에 대비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FTA체결 상대국 수입증가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융자(운전·시설자금)와 경영·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역피해사실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를 작성해 중진공에 제출하고, 무역위원회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 지식경제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신청서류 작성지원을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도 현장에 파견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보, 건설사·중기 돕기 유동화증권 1천억 발행

신용보증기금은 건설사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82개 기업이 편입된 총 1065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CBO)을 올해 처음으로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설사 CBO는 39개 기업이 편입된 540억원 규모이며, 중소·중견기업 CBO는 49개 기업이 편입된 525억원 규모다. 신보는 관례로 매년 첫 CBO를 3월에 발행해왔다. 올해는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 지원에 초점을 맞춰 발행 일정을 한달 이상 앞당겼다. 신보는 올해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CBO를 발행할 계획이다. 전년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